



축산업 소득세감면 건의서 제출

- 본회 등 3개 생산단체에서 농수산부, 재무부, 국회요로에 -

본회를 위시한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동용), 사단법인 한국낙농비육협회 (회장 황영구) 등 3개 생산자단체에서는 재무부, 농수산부, 국회, 농수산분과, 재무분과에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건의 했다.

3개 생산자단체의 공동명의로 건의된 이건의서는 재무부에서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83년 부터는 신규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이 전면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애써 닦은 축산기반이 흔들리고 농가소득 향상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야기될 것을 우려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세제운용을 강구해 줄것을 건의하고 있다.

축산업 소득세감면에 대한 건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건의

1.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경위

감면개시년도	감면종료년도	감 면 내 용
1969. 1. 1	1979. 12. 31	5년 100%, 그후 2년 50% 감면
1977. 1. 1	1981. 12. 31	신규업자에 한하여 소득발생년도와 그후 3년간은 100%, 그후 2년은 50% 감면
1982. 1. 1	1986. 12. 31	신규업자에 한하여 소득발생년도와 그후 5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2. 현 황

가. 정부의 축산진흥계획에 힘입어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시작되기 전해인 1968년에 비하여 가축두수 및 축산물 소비에서 장족의 발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소득증대에 따라 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어 축산물의 자급을 위하여 축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나. 축산업의 전업 또는 기업화는 연관산업인 유가공, 육가공, 난가공 등 축산물 가공업체와 식품, 요식산업, 처리산업과 배합사료, 단미사료, 동물약품 등 원료공급산업 및 축사·가공장 건축에 따라 축산기계, 기구산업, 건축업과 운수, 포장, 보관 등 실로 국가 중요산업에 크게 과급효과를 미쳐 고용효과와 경기활성화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3. 소득세 감면 폐지에 따른 문제점

가. 지금까지는 축산물 소비의 급증으로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쳐 왔으나 이제는 내실을 기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업을 안정시켜야 할 단계인데 면세제도가 폐지되면 이를 위한 투자유치가 어려워진다.

나. 축산업은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나 수익성도 적고 기반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자금이 회입기간이 길어 수익성이 적기때문에 정책단계에서 세계에 대한 혜택이 없다면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축산업은 생산물에 대한 가격 신뢰성이 적어 불안정한 산업으로 년중 가격진폭이 크고 축산업 자체가 생물을 취급하는 산업으로 질병 등에 대한 위험부담과 생산물의 저장능력이 없어 이러한 제반여건이 성숙될 단계에서 세계혜택을 철회하면 산업이 위축되어 축산물의 자급은 요원 하여진다.

라. 축산물 수요 급증

국민 소득증대에 따라 축산물은 광의의 식량으로 매년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도 부족한 육류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량의 자급도를 높이는 안보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마. 금년부터 5년간 신규업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현행법상)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신규로 시작한 투자자들이 법시행 1년 만에 변경되면 사업수행에 막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

4. 건 의

축산식품은 절대의 식량으로 안보적 차원에서 국내 자급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축산업 안정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현행 세법대로 '86년도 사업분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 주시고 농가부업 규모를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없도록 상향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가축두수의 증가, 1인당 축산물 소비량, 축산업의 기업화 추세(농가호당 사육규모), 축종별 자급회임기간, 축산물 가격의 진폭, 연도별 가축 사육수, 주요축산물 년도별 소비량, 축산물 수입 현황, 배합사료 생산실적, 축산물 수요예측, 축산물 유통경로

제 4 회 축산물생산자단체 협의회 개최

- 10월 5일 종축개량협회 회의실에서 -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양축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 4 회 축산물생산자단체 협의회가 지난 10월 5일 오전 11시 종축개량협회 회의실에서 4개 생산자단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업계의 당면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사료협회회장단과 생산단체 단체장과 의 간담회를 개최키로 협의했다.

또 축산단체들이 모여있는 축산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회관의 수리보수, 각단체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회의실(한층전체)을 설치하는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10월 8일 오후 본회의회의실에서 -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고태영)은 지난 10월 8일(금) 오후 2시 본회의회의실에서 전국의 채란분과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채란업계의 오랜 불황이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에서 아직도 가격안정을 위한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계란시장의 분석, 계란가격의 신속 통보를 위한 통신망 구성, 전염성후두기관염(ILT)등 방역에 대한 문제점 검토, 난좌 유통 개선 방안, 집란센타(GP센타)설치에 대한 준비, 계란 소비홍보 방안검토,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선진국 양계시찰 등이 거론되었다.

반공강연회 개최
- 축산회관 각단체참석 -



△ 본회 회의실에서 열린 반공강연회에서 이 홍보씨가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강연하고 있다

본회를 위시한 양돈협회, 종축개발협회, 낙농비육협회, 양봉조합 등은 지난 9월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남대문경찰서 대공과의 협조로 반공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축산회관내 각단체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회는 전 평북대천에서 출생해 개성시 여객사업소에 근무하다, 지난 76년 8월 3일 귀순한 이홍보씨(현 기아산업 근무)를 초빙, 북괴의 주민생활, 축산, 귀순동기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이날 강연회는 북괴간첩 식별방법, 정신전력 강화, 대공의식의 생활화 등에 대한 강연과 질문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육계산업연구회 정기월례회 개최

-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간행물 발간계획 -

육계산업연구회(회장 이태근)는 제 9차 정기월례회를 지난 9월 10일 수원에서 개최하였다.

한국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망스러운 길은 무엇인가? 한국 육계산업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육계생산자 및 관련부문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주로 관심있는 육계 생산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이날 주제의제는 현재까지 가장 낙후되어있고 천시되고 있는 육계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산업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로 이와 관련되어 대외적인 육계산업의 격상(格上)을위하여 우선 독자적인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자세와 주장을 표현할 것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분회 및 지역계우회 방문

- 본회 활전무 및 임국장 -

본회 황인옥전무와 임덕성사무국장은 분회활동의 활성화와 지역 양계단지의 현황과악을 위해 지난 9월 본회소속 분회 및 계우회를 방문하였다.

동두천, 포천, 의정부, 연천, 부천, 김포, 안양, 수원, 평택, 천안, 홍성, 광주, 이천 등지의 분회 및 계우회를 방문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협조체제 확립과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나누고 양계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자생조직인 계우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양계인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소속된 분회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